


보 도 자 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배포 일자	2024. 11. 27.(수) 총 2매 (본문 1, 붙임 1)	
자료 제공	• 어촌연구부 - 박상우 부장 (051-797-4562)	
배포 부서	• 기획조정본부 성과홍보실(051-797-4381, 4396)	
보도 일시	2024. 11. 27.(수) 즉시 보도 부탁드립니다.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www.kmi.re.kr		

전 세계 어촌의 현재와 미래를 연결한 2024 세계어촌대회, 4일간 대장정의 향해 성료 - 32개국 60여 개 기관 2,686명이 참석하여 지속 가능한 어촌 발전방안 논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김종덕)은 해양수산부, 제주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 11월 24일(일)부터 11월 27일(수)까지 4일간 제주 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2024 세계어촌대회(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shing Communities 2024)’를 개최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2024 세계어촌대회’는 총 2,686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가국과 국내외 참여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세계어촌대회(ICFC)’는 11월 24일(일) 19개국의 정부와 정부기관 국장급이 참석한 국가 대표단 회의(National Representatives Meeting)를 시작으로 개폐회식과 5개 공식세션, 9개 비공식세션, 부대행사(홍보전시부스, 이벤트 공연, 현장투어) 등이 진행되었다.

세계어촌대회는 어촌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하나의 바다공동체’를 협력 & 연대 정신으로 연결하고 ▲여성어업인 ▲어촌 비즈니스 ▲스마트 어촌 ▲기후변화 대응 ▲국가·지역 간 협력·연대 등 주요 아젠다별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종덕 원장은 “짧은 기간 동안 해양수산부, 제주특별자치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글로벌 어촌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행사였다”라고 말하며, “세계어촌대회가 앞으로도 국제기구, 글로벌 어촌어업인 네트워크 등과 협력을 강화하여 전 세계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과 비전을 선도해 나갈 것이며, 동시에 국내 유관기관과 ESG 관련 기업이 참여하는 전국 어촌 플랫폼으로도 발전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상기 보도자료 관련 더욱 자세한 내용 및 취재지원 필요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박상우 어촌연구부장(051-797-4562) <swpark@kmi.re.kr>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4 세계어촌대회 폐회식 등 관련 사진

